

CREATION TRU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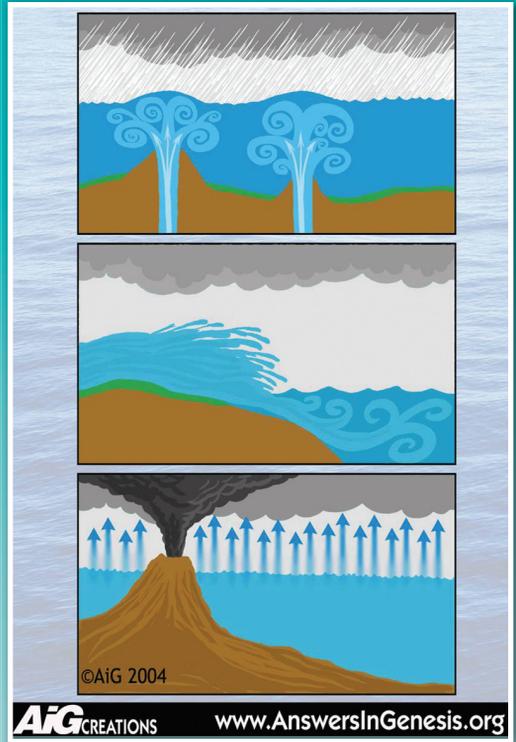
습윤사막:

홍수 직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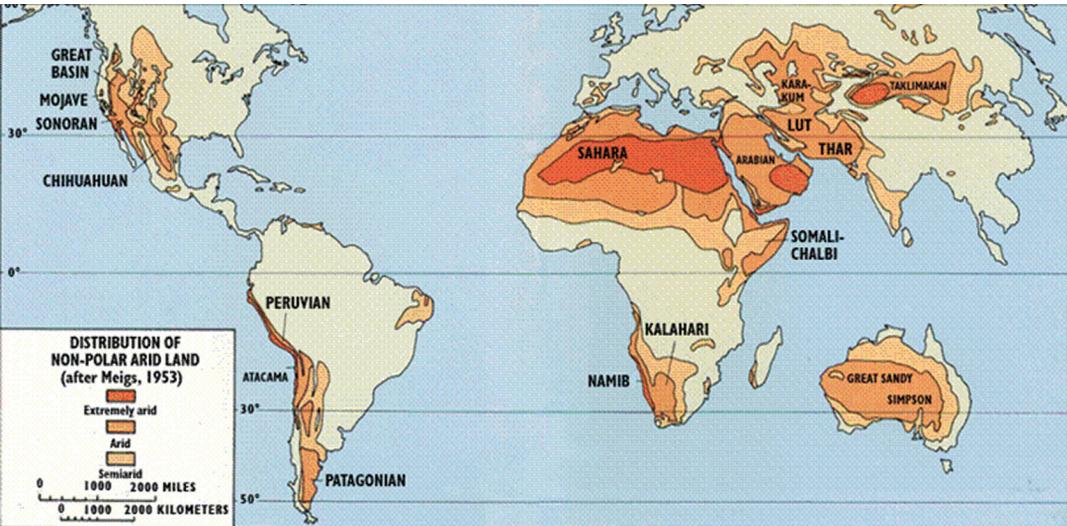
빙하시대의 징검다리

노아홍수라는 성경적 사건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빙하시대를 그려보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 높은 대양 온도는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 실제로 노아홍수 때에 대양의 증발로 대기 중에 습도를 높였다는 설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깊음의 샘이 터질 때뿐 아니라 특별히 홍수 후기에 대양이 벌어지며 새로운 용암이 흘러나와 바다 밑바닥을 메울 때 대양은 빠르게 온도가 상승했을 것이며,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대기 중에 방출했을 것이다. 이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연속적으로 수 개(또는 수십 개)의 거대한 화산폭발로 낮아진 온도의 대기와 만나게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강설이었을 것인가?

여기서 빙하시대를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습윤사막(wet desert)’이다. 습윤사막이란 지금은 사막이지만 이전에는 사람과 동물이 살기에 적합하게 비가 내렸던 곳을 말한다. 실제로 현재 대부분의 사막들은 과거에 사람과 동물이 살기에 어려움이 없었던 증거들을 보여준다. 가장 광활한 사막인 사하라 사막도 코끼리, 기린,



홍수 시작과 물이 빠져나가는 홍수 후기, 그리고 바다의 용암으로 인해 다량의 증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의 상상도



오늘날 사막의 분포 - 최근까지도 사람들이 살만큼 좋은 환경이었다

버팔로, 영양, 코뿔소 등이 발견되며, 심지어 사람의 예술품, 도자기, 도구들이 발견된다. 이들 동물의 뼈들을 보면 추운 곳에서 거주하는 동물들과 따뜻한 곳에서 거주하는 동물들의 화석과 뼈들이 함께 존재한다. 이는 최근까지도 사람들이 살만큼 좋은 환경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 습윤사막에 대한 궁금증도 노아홍수의 여파로 형성되었다고 보면 어렵잖게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양에서 증발하는 수증기로 인해 지구 전체가 비가 내려 대지를 적셨고 이로 인해 추위와 더위도 지금과 같이 극심하지도 않았던 환경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추위와 더위”(창 8:22)에 대한 언급을 하셨지만 홍수 직후 추위와 더위는 지금보다는 온도차이가 훨씬 적었던 추위와 더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습윤사막은 전지구적인 다량의 증발이 있었던 홍수 직후의 환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습윤사막의 이해는 노아홍수 직후와 빙하시대 사이를 설명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증발과정은 물의 온도를 낮추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당시 따뜻했던 대양은 증발과정을 통해 온도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화산폭발로 인한 낮아진 대기를 통해 비가 눈으로 바뀌며 결국에 대양의 수온과 대기의 온도의 조화 속에서 빙하시대의 절정을 맞이했을 것이다.

오늘날 사막은 그리 특별한 곳이 아니다. 육지의 1/3이라는 광활한 지역이 사막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의 많은 부분도 열대지방, 빙하, 동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제로 지구전체에 일년 내내 온도 차가 그리 크지 않아 항상 좋은 기온을 유지하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러나 노아홍수 직후에는 대기 중에 너

넉한 습기로 인해 지구 거의 대부분이 이런 극심한 기후가 없었던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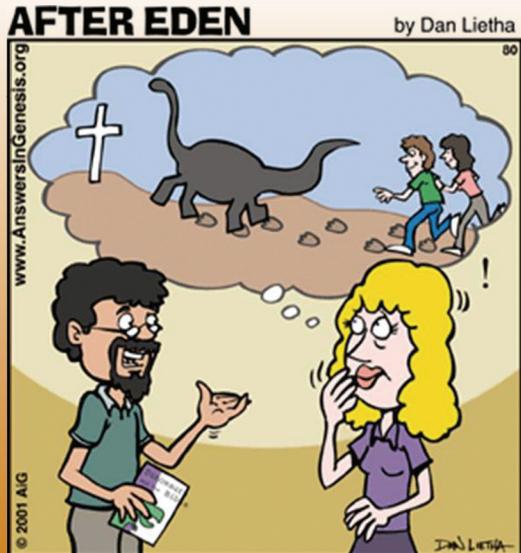
만약 지구 전체가 아주 춥기만 했다면 빙하시대가 돌아올까?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칼럼을 통해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빙하시대는 눈이 많이 내렸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기온은 낮지만 태양의 온도는 높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구가 이런 독특한 조건을 유지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 더군다나 한번을 갖추기도 어려운데 진화론자들이 수십 번의 빙하시대가 왔다고 믿는 것은 단지 오랜 지구나이의 패러다임 하에서 설명을 하려는 노력의 결과일 뿐이다. 따뜻한 태양의 조건과 습윤사막을 통해 노아 홍수에 이어지는 단 한번의 빙하시대는 증거들과 잘 맞아 떨어진다.

오늘날 살아있는 인류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다. 그러나 더 좁히면 결국 홍수심판 때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이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죽었던 홍수심판 때 구원받았던 가족의 후손이라는 점이다. 그 구원받은 가족이 살도록 허락하신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사막, 빙하, 동토, 극심한 추위와 더위가 있는 오늘날의 지구 환경은 모두가 빙하시대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이 악화된 환경인 빙하시대는 왜 일어난 것일까? 이는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창조과학사역
정말
흥미롭네요!
공룡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실 걸
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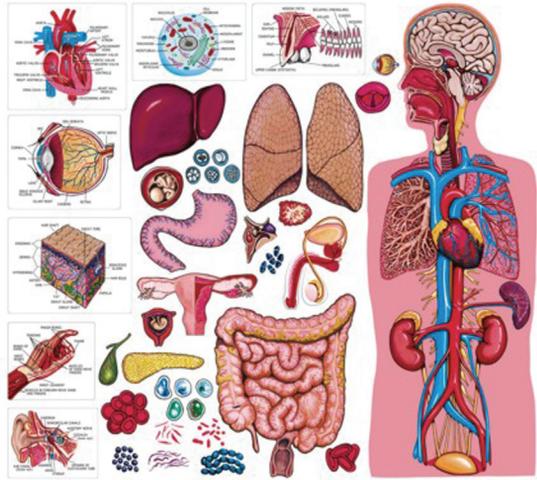
DNA가 생명체인가?

생명이 무엇인지 물어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DNA 라고 대답한다. 과학이 삶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세대는 많은 과학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과학 지식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해서도 과학을 통하여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고, 물질로만 생명을 이해하려는 일부 진화론적인 과학자들은 생명을 DNA라고 말한다. DNA가 바뀌면 생명체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DNA 구조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은 「DNA: 생명의 비밀」이란 책에서 DNA가 생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과학이나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DNA를 생명 혹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DNA는 생명도 생명의 근원도 아니다!

DNA는 엄밀하게 말하면 생명체의 정보를 보관하는 기본 단위로서 deoxyribonucleic acid(DNA)라는 4 종류의 화학물질들을 말한다. 이름이 길기 때문에 대개는 A, T, C, G라는 약어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용어로 DNA라는 말은 생명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생명체의 정보들은 마치 성경책이 66 권으로 구성 되듯이 여러 개의 염색체라는 덩어리에 나누어져 있다. 또 이 염색체는 각 권의 책이 문장으로 이루어 지듯이 여러 개의 유전자들을

담고 있다. 사람의 생체 정보는 23 개의 염색체에 2만 가지가 약간 넘는 유전자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DNA만으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생명은 이런 DNA라는 화학물질 자체가 아니다.

뼈나 근육이나 피부가 우리 생명이 아닌 것처럼 DNA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체에 필수적인 한 부품일 뿐이다. 생명체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들은 세포가 여러 개 모여서 한 생명체를 이룬다. 이 세포는 DNA도 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종류의 화학물질들로 구성 되어 있다. 만약 이 중에 몇 가지 화학물질들이 없다면 생명체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 DNA가 없어도 생명을 잃을 것이고, 수만 가지 단백질들 중에 단 한 가지만 없어도 생명을 잃을 수 있고, 나트륨이나, 칼슘 혹은 인이나 아연이 없어도 이 세포는 살 수 없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DNA 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 몸이 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근육들도 있어야 되고 피부도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DNA가 생명체에서 독특한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DNA에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복사기를 만드는 정보인 청사진이 여러 벌 있어도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복사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DNA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정보가 생명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DNA가 무생물을 생명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장이 사람이 아니듯 DNA는 생명이 아니라 세포의 부품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생명은 무엇인가? 진화론적인 과학자들은 생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생명체의 특징 중 가장 특이한 DNA를 지목하여 생명의 대체물로 삼았다. 그러나 생명은 DNA나 단백질이나 그 어떤 물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진실을 알아내려는 생물학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다. 과학자가 생명체를 연구할 수는 있지만 생명은 자연과학의 영역이 아닌 것이다. 성경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시편 36:9)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1:3; 골로새서 1:16)는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 하신다(요한복음 14:6). 모든 생명체들은 바로 그 생명을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ACT News

탐사여행
창조과학학교



창조과학탐사여행

지난 6월은 창조과학 탐사여행으로 가득 찼던 한 달였습니다. 무려 9번이나 출발했습니다. 대상도 다양해서 교회, 신학교, 신학생, 영어권, 한국의 중고등학교, 의사팀 등였습니다. 경유지도 그랜드캐년과 빙하시대 탐사여행 모두 골고루 이루어졌습니다. 진행도 이재만 부회장, 최우성 박사, 김선욱 박사 등 다양한 강사들이 출동했습니다. 그 감동은 간증문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랜드캐년 중심의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5/29-31)와 오렌지 한인교회(6/7-9)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는 매년 메모리얼 연휴에 출발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임시 담임목사: 김윤진)는 단체로는 이번이 첫 참석입니다. 참석자들은 탐사여행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겠다는 희망을 보였습니다.

장신대학교(6/14-18)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의 총회장님(지용수 목사)과 임원들 그리고 6개 대학 총장님과 이사장님 내외분 등 44명이 닷새간의 탐사여행에 참석하셨습니다. 탐사여행 동안 창조과학 내용뿐 아니라, 사역의 중요성까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신학교 교수들과 교회의 성도들에게 창조과학과 탐사여행을 적극 활용할 것을 피력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앞으로 한국 기독교 내에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목사 호칭과 사모 성함은 생략). 지용수(총회장), 이순창(서기), 김태영(회록서기), 임동진(장로, 회계) 최내화(장로, 부회계), 김용재(장로, 부회록 서기), 황해국(부서기), 안영민(총회), 고용수(영남신총장), 진희성(영남신 이사장), 민경설(대전신 총장), 김영태(대전신 이사장), 경장복(한일 장신 총장), 박영선(한일 장신 이사장), 장영일(장신대 총장), 강신원(장신대 이사장), 차종순(호남신 총장), 김유수(호남신 이사장), 문성모(서울장신 총장), 고시영(서울장신 이사장), 김휴섭(장로, 기독교보사장) 등입니다.



2차 신학생 탐사여행(6/21-23)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떠나는 신학생 탐사여행이었습니다. 올해는 첫 해보다 훨씬 관심도 높고 진지하여, 창조과학 사역자의 중요성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교회 지도자가 될 분들로서, 진화론이 등장한 이후로 창세기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자세에서 벗어나, 오랜 연대의 진화론과 결합된 신학적 해석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앞으로 자신의 사역에 귀중한 시기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탐사여행도 작년에 이어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능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글로벌선진기독교학교(GVCS)

한국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글로벌선진기독교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샌디에고에 머물며 언어 연수 과정 중에 있는 6학년부터 11학년 20명과 교사 1 명이 참석 하여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세미티 중심의 빙하시대 탐사여행

6월은 빙하시대 탐사여행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세미티가 위치한 Sierra Nevada 산맥을 넘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눈 녹은 물로 폭포들이 장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신대학교/예장통합 탐사여행 중 메다포인트에서



매달 6월에 빙하시대 탐사여행을 모집합니다. 빙하시대는 성경의 역사 중에 노아홍수 후기부터 바벨탑에 이은 야곱 때까지를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탐사여행입니다.

6월 10-12일에는 3년째로 연속 빙하시대로 모집한 탐사여행이었으며, 24-26일에는 사랑의 빛 선교교회(담임목사: 김재문)가 참가했습니다. 사랑의 빛 선교교회는 작년에는 그랜드캐니언으로 탐사여행을 떠났지만 이번에는 빙하시대로 참가했습니다. 28-30일은 LA에 거주하는 의사들로 구성된 팀이 빙하시대에 참석했습니다. 진지한 질문과 답변 속에 한결같이 탐사여행의 놀라운 효과에 대하여 공감했습니다. 탐사여행이 단지 교회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단체에게 전도의 방법으로 얼마나 훌륭한지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갈릴리 은혜교회 EM

김선욱 박사가 인도한 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두 번째 탐사여행이었습니다. 토랜스에 소재한 갈릴리은혜교회(담임목사: 구본철) 영어권 6-12학년 학생들과 교사 등 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일간 진행 된 세도나와 그랜드캐니언을 중심으로 노아홍수를 비롯한 성경적인 세계관이 소개 되었을 때 많은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학생들이 이런 질문들을 마음

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EM을 위한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8월 5-7일 에브리데이교회(담임목사: 최홍주) EM 중심으로 김낙경 박사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계속 EM 창조과학탐사여행과 세미나가 진행 되어 세상 거짓 공격에 고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성경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EM 탐사여행에서 노아홍수를 설명하고 있는 김선욱 박사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모집

오는 8월 2-4일 10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은 이제 유학생 교회에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매년 1월과 8월 첫째 주에 출발합니다. 유학생 탐사여행은 서울 온누리교회와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이루어지므로 참가비가 \$90입니다. 참가 자격과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학교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우는 데 아주 효과적인 창조과학학교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구세군교회(담당사관: 장호윤)에서 4월 9일부터 6월 11일 까지 진행 된 제10기 중부지역 창조과학학교는 47 명이 등록하고 44 명이 수료 하였습니다. 중부지역 11기 창조



시카고 지역 제 10기 창조과학학교 졸업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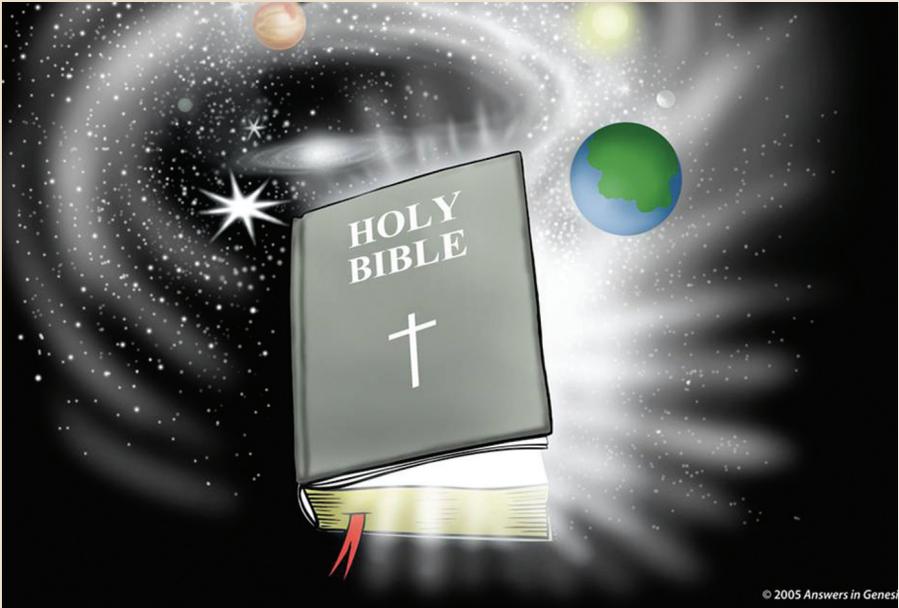
과학학교는 9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 주 금요일 저녁 8:00-10:00시 미드웨스트장로교회(담당목사: 정영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847-845-5368/630-400-6114, Email: tyi@sbcglobal.net

서부지역에서는 18기 창조과학학교(6월 13일~8월 29일)가 ANC 온누리교회(담당목사: 유진소)에서 25 명이 등록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조과학학교를 유치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선교회 사무실로 미리 연락 바랍니다.

창조과학사역자를 위한 기도

저희 창조과학선교회의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들을 맺고 더욱 많은 일정이 생겨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요구들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창조과학 사역자가 준비 되도록 관심과 후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훈련 받을 일군들을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6월부터 8월까지 창조과학에 대해 배우고 있는 인턴십 과정-1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하루가 지금의 하루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면 주어지는 특권(1)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난 후에 창세기의 하루가 지금의 24 시간과 동일하다는 설명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충격과 감격은 진했고 믿음의 눈을 밝게 해주었고 과학이 신앙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직업에 자부심도 경험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을 부정하는 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과연 어떤 것인지 오랫동안 궁금해 왔다. 생각보다는 많은 기독교인이 이 정보를 대할 때 주저함을 본다. 혹 이러한 정보가 틀리면 복음에 누가 되지 않을까하는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출발해서 기독교인 사이에 자칫 분열을 걱정하는 관점 또는 극렬히 싫어하는 관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본다.

하나님께서 6일만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지 핵심에 아주 가까운지 아니면 별 중요한 요소가 아닌 지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려보자. 신앙의 핵심이란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구원이 불가능하고 이단에 빠진다는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6일창조를 믿는 것은 신앙의 핵심은 아니지만 핵심에 아주 가깝다. 알게 되면 진리를 덧입게 되면서 깊은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이다.

분명한 것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도 창조과학에 대한 강의를 듣지 않아도 과학을 전혀 몰라도 귀한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고 지금도 거친 북녘 어느 곳에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고 하루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장부들이 있고 믿음을 표현하면 목숨이 위험한 땅에서 오늘도 하루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이들 중에 본 질문이 그들의 생존에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즉, 시간과 공간과 자유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본 질문이 설명 될 때 받아들이면 어떠한 특권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것이 관심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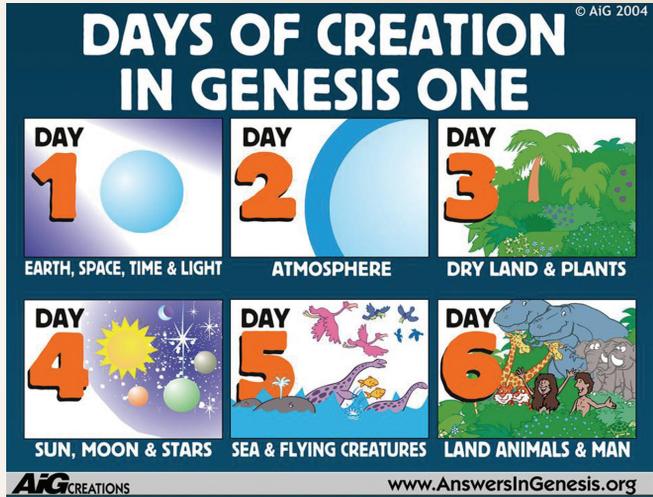
창세기의 하루가 24 시간인가 라는 해석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보면 범상한 질문이 아닌데 이는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와 연결되어 있고, 대홍수가 전 지구적인가 아닌가와도 연결되어 있고, 출애굽기 20:11절의 십계명의 한 명령과도 연결되어 있다.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에는 24시간 개념이 있다. 반론을 제시하는 이들이 베드로후서의 하루가 천년같고 라는 구절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과학적인 공황(恐慌)을 초래한다. 하루는 지구의 한번 자전을 의미하는데

만일 24 시간이 아니라 천년이라면 지구 표면은 엄청나게 덥던가 혹은 춥던가 하여 땅의 표면 온도를 적정량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렵다.

창세기의 하루가 24 시간으로 여겨지면 우리에게 누리는 특권은 무엇일까? 요즘 많이 쓰이는 영성을 하나님 말씀에의 순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얻는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보면 다음 세가지를 먼저 꼽아볼 수 있다 - 거룩함의 특권, 완전함의 특권 그리고 판단함의 특권이다.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를 믿게 될 때 잃어버리는 세 가지의 특권에 대한 기사가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최호진 박사 / 금속 공학



창세기 1장의 6일간



특별한 피조물, 인간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고 적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최초의 짝이 유인원으로부터가 아니라 ‘태초에’ 창조되었다고 재확인하셨다. 포유류들이 해부학적으로 유사한 측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특별함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진화론의 생각 중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파괴적인 것은 아마도 인간이 자연적 과정에 의해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신념일 것이다. 더욱이,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인간은 진화의 최종목표가 아니고 단지 중간과정일 뿐이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선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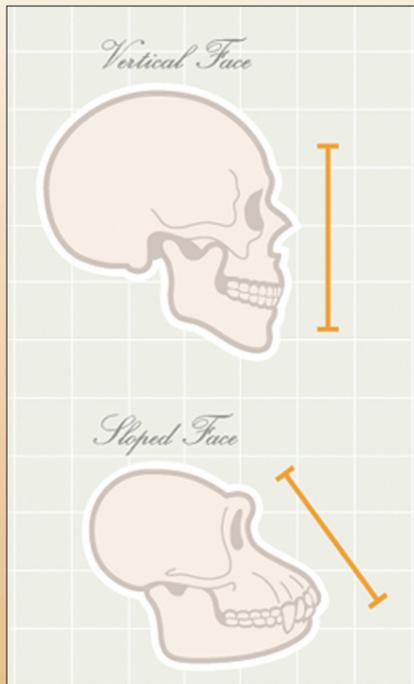
창세기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6-27). 짐승으로부터 진화된 후손과는 반대로 인간은 그들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았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을 주목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르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9:4-5).

하나님은 “인간 원숭이”란 창조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화석이든 살아 있는 상태이든 인간과 유인원을 구분하는 일이 아주 쉽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든 포유동물들 사이에 해부학적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삼척동자라도 인간의 두개골과 유인원의 두개골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두개골을 옆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두개골은 수직의 얼굴에 돌출된 코뼈(여기에 우리가 안경을 걸친대)가 있지만, 유인원 두개골은 경사진 얼굴에 평평한 코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는 해부학적 혹은 생리학적인 차이가 아니다. 인간의 정신과 영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다. 따라서 오직 인간만이 바울 사도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초대된 존재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16)

데이비드 멘튼 / David Menton 박사는 브라운 대학에서 세포생물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은 잘 알려진 저자이자 교수이다. 그는 현재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의대 명예 교수이다. 많은 논문을 발표했고 AiG의 가장 유명한 강사 중 한 명이다.



인간의 두개골 vs. 원숭이 두개골

ANC 은누리교회/ GVCS/ Fuller 신학생 탐사여행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준 탐사여행,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해준 탐사여행, 구원의 확신을 준 탐사여행, 강의를 통해 창조의 역사를 알게해준 탐사여행, 세상속에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게해준 탐사여행, 탐사여행을 통해 받은 은혜와 얻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의 확장이 될 것입니다. - ANC 은누리교회 김미송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또한 과학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막연히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변화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ANC 은누리교회 김수경

예전에는 창조과학적 접근이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느꼈는데 성경의 모든 내용은 무오하다는 믿음하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과 결과에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빅뱅이론이나 DNA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있지만 모든 분야에 과학적인 접근이 성경과 일치할 수도 있다는 놀라움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중에서 기존 과학 상식과 맞지 않는 부분은 대면하지 못했거나 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 자신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ANC 은누리교회 백호연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나의 사고속에 진화론적 패러다임이 섞여 있었음을 알고 놀라웠습니다. 성경에서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귀중한 탐사여행이었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나의 희미했던 부분들이 확실해지고 확인되는 흥분된 사건이었습니다. 남은 여생을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한국 소망교회, 강춘구 장로

저는 지금까지 과학 잡지에서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하여서 지금까지 진화론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조만이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GVCS 이영민, 6학년

저는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정말 좋은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랜드캐년에서 그림같은 풍경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GVCS 김재훈, 6학년

우리 인간이 찰스 다윈이 말한 것처럼 그냥 원숭이가 진화해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조과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시는 진화론을 주장하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그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 GVCS 이진영, 6학년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히 진화론은 허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며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욱 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진리의 말씀을 확신있게 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미령, 그레이스 선교대학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인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하기에 진화론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은 삶의 전반적인 도전이 되었고 잘 모르던 창조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 이성욱 목사

Fuller 신학생 탐사여행을 하도록 후원해주신 ANC 온누리교회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무의식까지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요섭 목사

믿음을 강요하지 않고 창조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목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얻게 되어 감사하고, 진화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변론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 송승현 목사

그랜드캐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격했었던 작년과는 달리, 이번 신학생 탐사여행에서는 자기의 형상을 물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진로를 그랜드캐년을 통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 노아홍수를 읽을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더 분명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로를 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게 해준 여행이었습니다. - 박은숙 선교사

창조에 대한 많은 궁금증, 특히 지구의 연대에 대한 나의 정립되지 못한 부분이 명확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철승 전도사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서 진화론에 대한 실체를 알게 되었다. 무의식중에 배워왔던 거짓 진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로 알고 지냈던 시간에 대한 답답함이 더했다.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찬양한다. - 유정인 선교사

더욱더 다원화되어가는 시대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떠한 목회를 해야 하는지 깊이 도전받고 많을 숙제를 안고 돌아옵니다. - 최우진 목사

날이 갈수록 복음화율이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진화론의 독주와 청소년들의 혼란을 막을 좋은 복음적 대안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석훈 목사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전공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자 교회의 소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조과학은 그 분명한 기초이자 최고의 전략인 것을 확신합니다. - 김인집 목사

●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 후기는 세 차례에 걸쳐 수집 된 것을 발췌하여 실었습니다. 전문은 저희 홈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ACT Schedule

- 8/1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우성), Lake View Terrace, CA
- 8/2-4 8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213-381-1390)
- 8/5-7 에브리데이교회 EM 창조과학 탐사여행(213-381-1390)
- 8/6-8 창조과학 탐사여행(다윗의 장막, 213-381-1390)
- 8/7 샌디애고 창조과학 박물관(최우성, 창조과학학교, 213-381-1390)
- 8/8 주님의 영광교회 새가족 (최우성), LA, CA
- 8/9-15 창조과학 탐사여행(크리스천 CEO, 213-381-1390)
- 8/15 LA 온누리교회 새신자(최우성), LA, CA
- 8/15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 Lake View Terrace, CA
- 8/17-20 창조과학 탐사여행(House of Siloam, 213-381-1390)
- 8/22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최태현), Lake View Terrace, CA
- 8/29 창조과학학교, ANC 온누리교회 (이재만), Lake View Terrace, CA

- 9/4-6 창조과학 탐사여행(LA 온누리교회, 213-382-5658)
- 9/10-11/12 중부 창조과학학교(미드웨스트 장로교회, 매금요일 8-10PM, 847-845-5368), IL
- 9/12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9/12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 9/14-18 창조과학 탐사여행(이랑학교)
- 9/20-27 창조과학 탐사여행(일본인, 213-381-1390)
- 9/27-29 창조과학 탐사여행(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213-381-1390)

- 10/4-10 창조과학 탐사여행(크리스천 CEO, 213-381-1390)???
- 10/10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10/11-13 창조과학 탐사여행(충현선교교회, 213-381-1390)
- 10/17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 11/12-14 토론토 성산교회 (세미나, 이재만, 416-785-4620), Canada
- 11/14 주님의 영광교회 (최태현), LA, CA
- 11/14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최우성, 562-653-0168), Cerritos, CA
- 11/15-18 창조과학 탐사여행(TIMIA)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